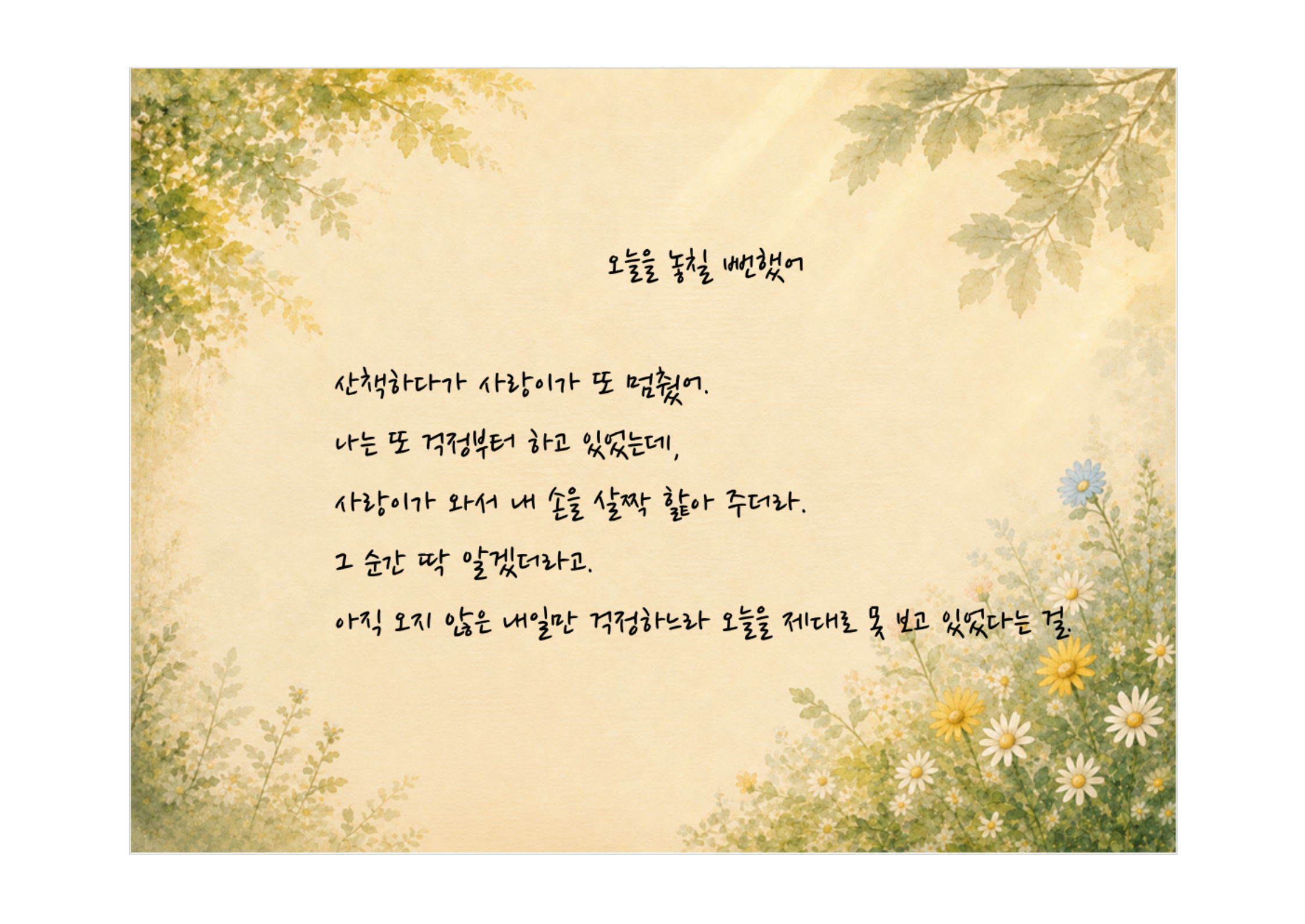






오늘을 놓칠 뻔했어

산책하다가 사랑이가 또 멈췄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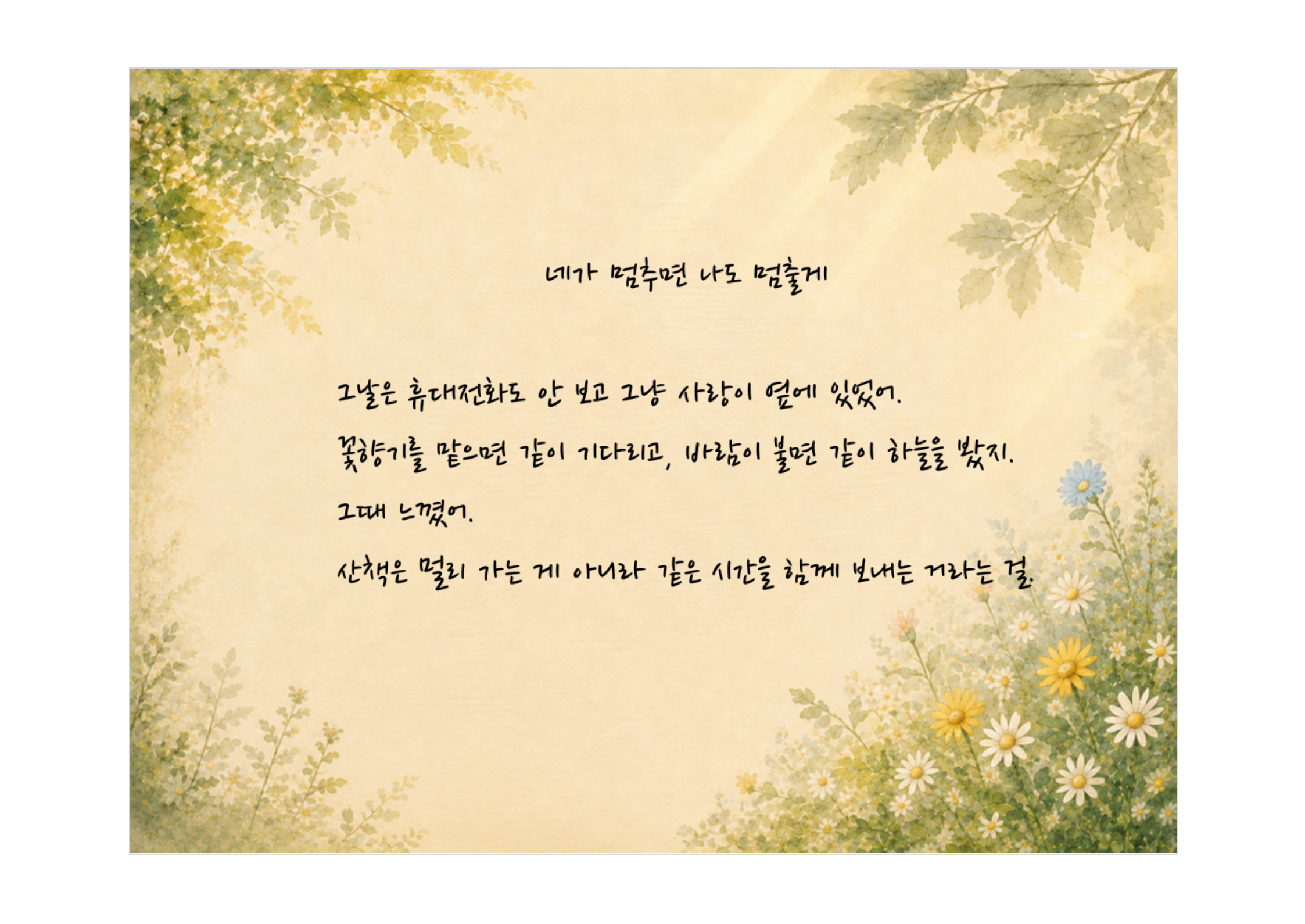
나는 또 걱정부터 하고 있었는데,

사랑이가 와서 내 손을 살짝 잡아 주더라.

그 순간 딱 알겠더라고.

아직 오지 않은 내일만 걱정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는 걸.





네가 멈추면 나도 멈출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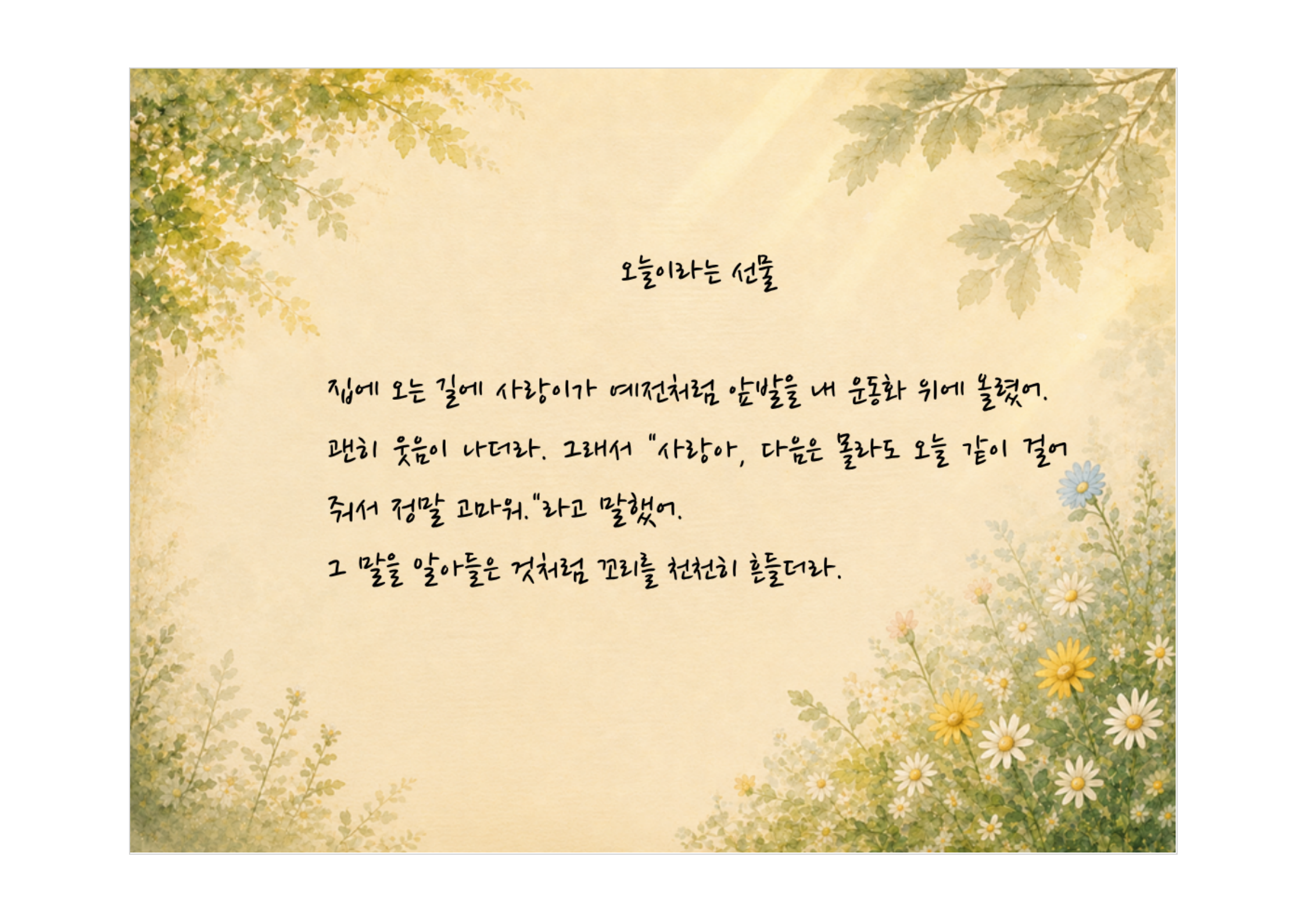
그날은 휴대폰전화도 안 보고 그냥 사랑이 옆에 있었어.

꽃향기를 맡으면 같이 기다리고, 바람이 불면 같이 하늘을 봤지.

그때 느꼈어.

산책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라는 걸.





오늘이라는 선물

집에 오는 길에 사랑이가 예전처럼 앞발을 내 운동화 위에 올렸어.

괜히 웃음이 나더라. 그래서 "사랑아, 다음은 몰라도 오늘 같이 걸어
주서 정말 고마워."라고 말했어.

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꼬리를 천천히 흔들더라.